HAUS OF MATTERS: H.O.M





ABOUT H.O.M / MEMBERS
ZOOMTERVIEW / NEW ALBUMS
ISSUE #2

KHL HAUS OF MATTERS **I SUE** #1

CONTENTS

ABOUT HOM

шшш

пини

P.4 Haus Of Matters 창립에 관한 모든 것

2 MEMBERS

P.7 KHL 창립 멤버 소개

NEW ALBUMS

P.11 5월 발매된 6개의 앨범들 & 심층리뷰

KII

4 ZOOMTERVIEW

P.19 ZOOMTERVIEW with DJSam

5 ISSUE #2

P.29 ISSUE #2 Preview: AP Alchemy vs KC, 두 개의 뜨거운 감자 안녕하세요, KHL입니다. HAUS OF MATTERS의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 블랙뮤직 팬 매거진인 본지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번 창간호는 프리뷰 형식으로 제작되었기에 다음달부터 발간되는 정식 이슈와는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AUS OF MATTERS

안녕하세요, Haus Of Matters의 편집장, Blackmatter입니다. 먼저 저희 매거진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창간호이니만큼 잠깐 페이지를 할애하여 Haus Of Matters의 창립 스토리를 이야기해볼까 해요. 약 2주 전 2023년 5월 23일, 저는 과외를 받고 있었어요. 시험기간의 절반 정도가 지난 때였는데 문득 '왜 국내힙합 관련 매거진을 못 본 거 같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평소에 한 번도 떠올려본 적 없던 생각이었지만, 이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기고 싶어졌어요. 하루라도 빨리 저와 같은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즐거이 소비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마침제 꿈이 아트 디렉터이기도 해서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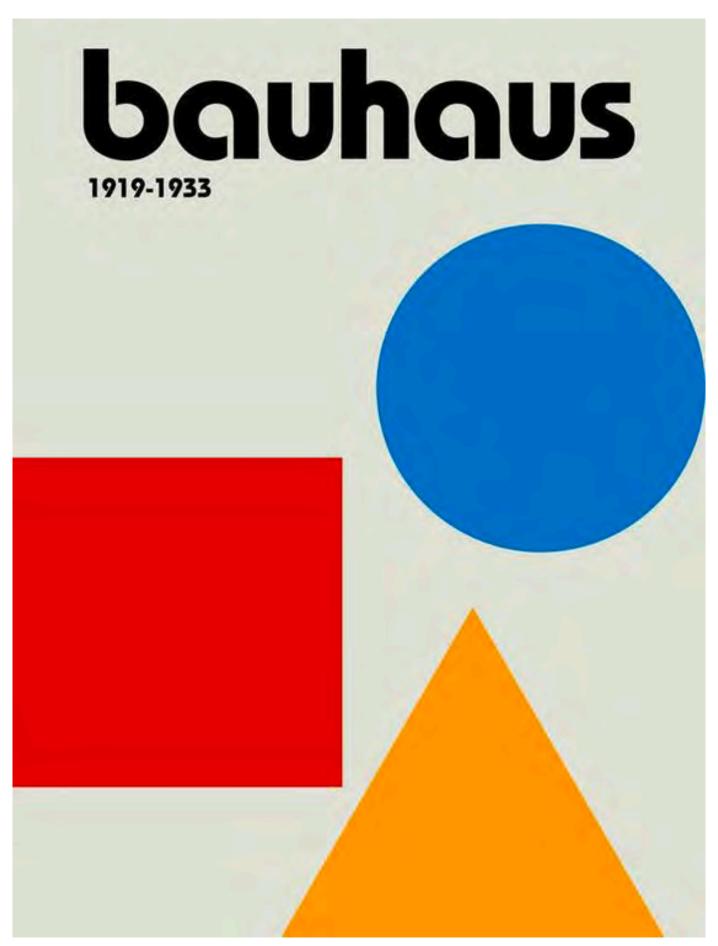


창간 스토리

NAME

Haus of Matters는 SNXO님의 아이디어와 저의 수정, 그리고 멤버들의 투표를 거쳐 탄생한 이름입니다. 독일어로 '집'을 뜻하는 'HAUS' 그리고 'BlackMatter'에서 따온 '문제'라는 뜻을 가진 'Matters'. 거기에 OF를 더해 HAUS OF MATTERS, 또는 줄여서 HOM. 이렇게 집을 뜻하기도 하는 중의적인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HAUS'

20세기 독일에 존재하던 세계 최고의 디자인 스쿨 BAUHAUS. 모던 디자인을 정립한 것과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SNXO님께서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HAUS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BAUHAUS가 생각났다. 어쩌면 우리가 힙합 매거진의 BAUHAUS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

2

MEMBERS

1945

'n

DIRECTORS

EXECUTIVE & CHIEF CREATIVE DIRECTOR

BLACKMATTER

안녕하세요, 음악과 디자인을 사랑하는 17살 BlackMatter입니다. 저와 같은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이 매거진을 창간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테니 많은 관 심 부탁드려요! Peace.

FAV Albums: Blonde - Frank Ocean, 독립음악 - CHOILB, Purpose - TAEYEON FAV Artists: Frank Ocean, The Weeknd, Tyler, The Creator, TAEYEON, LE SSERAFIM

CREATIVE DIRECTOR SNXO

CHIEF EDITOR

쟈이즈

쟈이즈입니다.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던 중 어느 날 의문의 괴한들에게 납치당했고 눈을 떠보니 산 속 지하 깊은 곳 HOM 매거진의 비밀기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매거진 주딱이 '너 나랑 큰일 한 번 하자' 하며 파딱까지 달아주더군요. 편집장님의 강압적이고 무자비한 행태를 이 자리를 빌어 규탄하는 바입니다. 제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FAV Albums: ALL K-BLACK MUSIC ALBUMS FAV Artists: ALL K-BLACK MUSIC MUSICIANS

EDITORS

DEVIKEN

영상 프로덕션 다니면서 웹소설 연재하고 있는 Devi Ken(트래시캔)입니다. 힙합을 듣고 더 진취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갖게 됐어요. H.O,M 매거진의 취지가 좋아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FAV Albums: Trip At Knight - Trippie Redd, DAMN. - Kendrick Lamar, 킁 - C JAMM

FAV Artists: Trippie Redd, Kentrick Lamar, C JAMM

LODING

안녕하세요. 힙합엘이에서 '주목받아야하는앨범모음집'과 '주목받아야하는앨범추천글'로 20년 대에 발표된 언급이 적은 국내 힙합/알앤비 글을 소개하고 있는 loding입니다. 짧지만 흡입력있는 글을 써 여러분에게 좋은 앨범을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AV Albums: FANACONDA - FANA, The Anecdote - E SENS, 180g Beats - DJ

Soulscape

FAV Artists: Khundi Panda, FANA, Deepflow,

악귀불패워럽

서귀포와 대구를 오가는 블랙뮤직 딜레당트 여행자 악귀불패워럽 a.k.a Alonso2000입니다.

FAV Albums: 양화 - Deepflow, Street Poetry - P-type, 열꽃 - Tablo

FAV Artists: P-type, 빌스택스, 이센스, 개코, 팔로알토

TOY_WIZ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활동하고있는 래퍼 포림(Forhim)이라고 합니다. 저는 3년간 꾸준히 힙합을 들어왔으며, 래퍼로 2년간 활동 중 입니다. 저는 평소 힙합 앨범 리뷰에 큰 관심이 있었고 이번에 매거진에서 그 관심을 펼쳐보려 합니다. 현직 래퍼가 리뷰하는 래퍼의 앨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FAV Album: E SENS - The anecdote, Kendrick lamar - good kid, m.A.A.d city, Tyler,

the creator - Flower boy

FAV Artists: E SENS, Kendrick lamar, Khundi Panda

WRITERSGLOCK

안녕하세요! Writersglock입니다. 사실 제가 힙합을 제대로 듣기 시작한지 이제 4년째라 다른에디터분들처럼 오랜 힙합팬이라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못지 않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매거진에 참여하고 싶었던 까닭도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들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글 읽으면서 많이 배우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좋은 팀원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FAV Albums: The Anecdote - E SENS, Founder - Deepflow, 파급효과 - Just Music

FAV Artists: E SENS, Deepflow, Nochang

孔JESUS

안녕하세요, 힙합엘이 줌터뷰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Jesus a.k.a 공ZA입니다. 매거진을 통해 기존에 진행하던 줌터뷰를 비롯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사랑합니다!

FAV Albums: The Life of Pablo – Kanye West, Channel Orange – Frank Ocean

FAV Artists: Kanye West, Frank Ocean, NewJeans

EASYB

안녕하세요, 카피비트 만드는 EASYB입니다. 이제 힙합 외길인생을 걸어온지 6년이 되어가네요. 힙합 음악을 사랑하는 리스너로서 제 감상과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맘꼇 나누고 싶어참여했습니다.

FAV Album: 이방인 - E SENS, 킁 - C JAMM, Life's Like - Jazzyfact

FAV Artist: E SENS, DEAN, C JAMM

45

이름이 45인 부분은 평소 마이클 조던을 존경하는데 조던이 형 번호의 45에 반절이라도 하자해서 23인데 조던의 2배 만큼 열심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____

FAV Album: Acid Rap

FAV Artist: Childish Gambino

오호홍햄빠끄세트

안녕하세요. 힙합엘이에서 활동하고있는 미취학아동 오호홍햄빠끄세트 입니다. 제 특기랄건 없고, 평소에 이런 움직임에 관심이 있었고 여러 신인 아티스트들 이나 묻힌 앨범들을 디깅하는 취미가 있어 리서칭 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갈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일해봐요! FAV Albums: Currents – Tame Impala, Some Rap Songs – Earl Sweatshirt, Cosmogramma – Flying Lotus

FAV Artists: MF DOOM, Earl Sweatshirt, JPEGMAFIA

WAVE

이전에 힙합/알앤비 아티스트로 활동했습니다. 주로 힙합/알앤비 이슈와 칼럼을 다룰 예정입니다. H.O.M. 기대 많이 해주세요!

FAV Albums: Yo Trane – Time & Space, Frank Ocean – Blonde, Blxst – No Love Lost

FAV Artists: Jay Park, Frank Ocean, Post Malone

NICOLAS

자기 소개 / 안녕하세요, 가사 한 줄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힙합 팬입니다. 제가 느낀 감정을 독자분들과 공유하고, 힙합 가사의 매력을 소개하고자 본 매거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쳐 지나간 수많은 가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FAV Albums: 12 - Beenzino, 킁 - C JAMM, 밭 - O'Domar

FAV Artists: Jclef, E SENS, Yerin Baek



AP ALCHEMY: SIDE P AP ALCHEMY

《AP Alchemy: Side A》에 이어 2달만에 《AP Alchemy: Side P》로 돌아온 에이피 알케미(AP Alchemy). 전작과 마찬가지로 앨범 전곡이 19금인만큼 더 원초적이고 솔직한 그들만의 색깔이 두드러진다. 무려 35명의 참여 인원을 아우르는 프로듀싱과 앨범 구성은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시도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3개의 타이틀곡 "Fosho-!", "밈 (meme)", "뭐 먹고 살았을까"같은 킬링 트랙들을 비롯하여 중반부엔 사이키델릭 팝을 연상시키는 "WAKEUP", "Way too high"가 유독 인상 깊다.여러 플레이어들의 개성과 기량이 넘치는 퍼포먼스는 에이피 알케미(AP Alchemy)의세계에 흠뻑 빠져들게 했고 "안녕", "잔상", "beginend"로 리스너들의 감정선을 자극하며 여운이 남는 마무리를 해주었다.

by Devi Ken

THE DRIFT

MIRANI

더욱 짙어진 '힙합'을 두르고 나타난 그때 그 소녀, 미란이가 첫 번째 정규 앨범〈The Drift〉로 돌아왔다. 저지클럽, 멤피스, 퐁크 등씬에서 핫한 장르를 적극 차용하는 와중에, 미란이 특유의 밝은 에너지도 숨기지 않았다. 미란이의 물오른 랩 퍼포먼스는 물론이고 프로듀서 kwaca, SUMIN 등의 세련된 프로듀싱은 듣는 이의 귀를 즐겁게 만든다. 미란이에게 소위 말하는 '힙합'의 맛을 원했던 사람들도, 전작의 대중적인 맛을 기대했던 사람들도 모두 충분히 만족할수 있는 매력을 지닌 작품이다.



by WRITERSGLOCK



CRUEL WINTER NAVI99

서리(30)크루의 전폭적인 서포팅과 여러 발매곡들의 호평으로 떠오르는 유망주 크루로 자리잡은 나비99. 그런 이들의 첫 번째 컴필 앨범인 〈Cruel Winter〉은 이전에 보여준 음악들보다 좀 더 다방면적인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 이 중 메인 프로듀서인 mpt와 2SL은 다양한 악기들을 적극 활용해 나비99만의 시니컬하면서도 저돌적인 모습을 유지함과 동시에 "war war war"같이 건조한 느낌이나 "Bud"같이 펑키한 맛을 내는 등 곡마다 각기 다른 개성을 참가해 컴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했다. 또한 크루의 프론트맨 cwar과 Od rhomp은 물론 나머지 멤버 (SASQTCH, HESSE, JUNGWAIN)들과 게스트로 참여한 서리(30) 멤버들도 각자의 개성을 여과없이 드러내 곡의 다양성을 더하는데 큰 일조를 해냈다.

by LODING



BOMMJERD

"봄은 고통의 계절이다"라는 말을 읽은 적이 있다. 모든 탄생은 고통을 수반한다. 그렇기에 만물이 깨어나는 봄은 탄생의 계절이자 고통의 계절이다. jerd의 두 번째 스튜디오 앨범인 〈BOMM〉에는 자신을 둘러싼 우울이라는 껍질을 찢어내려 하는 필사적인 발버둥이 담겨있다.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부터 강렬한 힙합 비트까지 모두 소화해낸 독특한 구성으로, 앨범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프로듀싱이 매우 인상적이다. 가사에 귀기울이며 듣다 보면 자신의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jerd의 봄에 한껏 취하게 될 것이다.

by WRITERSGLOCK

BEIGE KID MILLI

합작 앨범〈CLICHE〉로 아티스트로서 역량을 보여준 키드밀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던 음악의 감각으로 되돌아간다. 동시에 그간 쌓아온 음악적 센스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BEIGE〉는 키드밀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음악으로 꽉 찬 앨범이 되었다. 붐뱁부터 레이지까지, 다양한 무드의 트랙이 배치되었고 그 사운드 디자인은 가히 놀랍다. 자신만의 스텐스를 과시하며 17 트랙의 볼륨을 달려나가는 키드밀리의 랩 퍼포먼스도 압권이다. 지금의 키드밀리에게 잘 어울리는 작품이다. 전체 재생을 눌러 카트에 탑승하자. 키드밀리의 쉴틈없는 레이싱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by 대게



HAN PROJECT VARIOUS ARTISTS

힙합플레이야와 스포티파이가 공동 기획한 컴필레이션 프로젝트. '한국 힙합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목적을 지닌 프로젝트인 만큼 한국 힙합의 베테랑들부터 영 블러드들 까지 한데 모여 한국 힙합의 현재의 메인 스트림을 전시해 놓았다. 스머글러스의 터치로 한국 힙합을 대표하는 넘버 중 하나인 〈연결고리〉가 저지 클럽으로 재해석되는 부분, 키스 에이프가 피제이의 붐뱁 비트를 자유자재로 갖고 노는 모습, 여전히 막나가는 블랙넛의 가사 등의 주목할 만한 지점들도 잘 포진되어 있다. 오랜만의 탈 레이블-탈 크루적 컴필레이션 프로젝트인 데다, 각 트랙의 질도 라인업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만큼 더더욱 반가워지는 앨범.

by 악귀불패워럽



ALBUM ON THE WAY! SIK-K, HAON 23.05.18 1. SHAWTY WANNA WAIT 2. CRASH MERCEDES 3. BITCH BOY(feat. Leellamarz) 4. MAYBE I'M CRAZY 5. BALACLABA BABIES (feat. Blase) 6. POV: GOD (feat. Ourealgoat & Shyboiitobii) 7. I CAN'T SEE YOU 8. ABU DHABI D-DAY FREESTYLE (feat. Theo) 9. LOCKED-IN

15

ALBUM ON THE WAY!

Review by 45

2023년 5월 18일 H1GHR MUSIC에서 나오고 식케이가 자신의 레이블 KC를 세우고 낸 첫 앨범이다. 먼저 Rage 장르에 대해 설명해 보자면 2020년 "Miss The Rage" 통해 Rage로 불리게 됐으며 EDM 계열의 하이퍼 팝에 기초하여 나온 힙합의 세부 장르다. 사운드적인 특징 은 옛 콘솔 게임기의 배경음과 짧은 루프로 이뤄진 멜로디, 복잡한 하이햇 패턴, 신디 위주의 사 운드로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강하다.

많은 이들이 래퍼 Playboi Carti의 음악을 기반하여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 생각은 다르다. 플럭앤비의 맛을 담은 Cochise, 기존 무채색의 레이지와 다른 색채로운 DC The Ron, 전통 트랩 향을 섞은 SoFaygo 등 수많은 스타일의 레이지가 있지만 굳이 이미 많은 카피 캣을 가지고 있는 Trippie Redd의 2~3년 전 음악을 따라 한 게 의문이다. 여러 스타일의 레이지가 있지만 하나의 스타일만 가져온 것이 아쉽고, Trippie Redd의 21년도 작〈Trip At Knight〉의 향이 짙게 풍기며 조금의 변형을 거치기보단 카피하다시피 가져온 느낌이 난다. 그리고 2번 트랙 "CRASH MERCEDES", 4번 트랙 "MAYBE I'M KCRAZY"에선 Destroy Lonely의 랩을 생각나게 하는 매우 유사한 랩 스타일을 보여준다. 또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점같이 영어 가사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문제가 된다. 새로운 장르를 가져온다는 조바심 때문일까 전체적으로 신경 못 쓴 부분이 많다 생각해 아쉬웠다. 여러 스타일 중 재미없게 일관된 한 가지의 레이지와 자신만의 향을 섞기는커녕 어설프게 무작정 따라 한 신보에 아쉬움이 컸다. 아무리 따라 했다고 하더라도 본토 래퍼들과 견주어 볼 때, 식하온 특유의 매력을 더한 앨범을 만들었다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본토와 비교했을 때 큰 메리트도 없고 향도 없어서 몇 번 돌려보고 굳이 수차례 돌려볼 거 같진 않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장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만들어 낼 수 있기에 그들의 과감한 모험을 칭찬하고 싶다. 마음에 든 트랙은 9번 트랙의 "여전하게도"와 6번 트랙 "POV: GOD" 이며 좋게 평가하고 싶은 이유는 자신의 향을 많은 섞은 곡이고 9개의 곡들 중 일관된 Trippie Redd 스타일에서 많이 벗어난 사운드 같아서 뽑아봤다.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를 뽑아보자면 8번 트랙의 가사 중 한 부분인 '엄마 쟤 흙 먹어'로 Playboi Carti의 실없고 자극적인 가사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유쾌하게 풀어가면서 좋았다. 과거 식케이의 H.A.L.F가 래퍼 Travis Scott에 대한 지나친 카피로 논란이 되었지만 몇 년이 지나고 봤을 땐 모든 이의 인정을 받고 문익점 취급을 받듯이 이것도 수많은 재평가를 받을 수 있기에 지금 시점에서 단편적으로 보긴 이르다고 본다.



누구나, 아무도 Review by 쟈이즈

소리 없이 등장했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고타마 얼칸의 〈누구나, 아무도〉는 사운드의 과잉이 없는 담백한 프로덕션과 이 위에 짙게 깔리는 그의 공간감 있는 보컬 덕분에 깊은 울림을 남기는 작품이 되었다. 독특한 이름과 앨범커버만큼 한 번 듣게 되면 기억에 강하게 남게되다.

석가모니의 본명인 고타마 싯다르타가 연상되는 이름인 고타마 얼칸은 '고타마'와 '얼간이'의 합성어로 '가장 현명한 얼간이'가 되고픈 그의 바람이 담겨있는 이름이다. 〈누구나, 아무도〉는 이별을 다루는 앨범이기에 석가모니의 입적과 관련된 사자성어 회자정리(會者定離: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와 자연스레 이어진다. 앨범의 시작과 마지막 즈음 아련하게 들리는 타종 소리도 이 연상의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누구나, 아무도〉는 헤어짐 이후의 감정을 정리하는 작품이다. 고타마 얼칸은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을 처연하면서도 울림 있는 보컬을 통해 기타 사운드 중심으로 꾸려진 프로덕션 위에서 조곤조곤 전달한다. 곡의 중반부터 다른 사운드를 살짝 얹고 보컬에 감정을 실어 점차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대, 날 떠나"가 특히 인상적이다. 이 곡에서는 거친 톤의 보컬 퍼포먼스를 통해 감정전달을 풍성하게 만드는 최성 역시 돋보인다.

"혹평 fin"에서 고타마 얼칸은 '잘가요'라는 말을 힘겹게 건네며 관계에 마침표를 찍으려한다. 하지만 마지막 트랙 "무무무(無無無)"에 이르면 그의 마음을 억누른 감정의 마개가 뽑히고 '사랑한다'는 말을 되뇌며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기에 이른다. 잠깐동안의 격렬하게 몰아치는 드럼이 함께하며 작품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구간이다. 그러나 이 진심을 들어줄 사람은 이제 곁에 없다. "무무무(無無無)"인 것도 이 때문일까. '모든 것은 꿈이죠'라는 가사는 앨범의 맨처음 트랙인 "몽중몽[夢中夢]"과 다시 이어지며 순환하는 인상이다.

이렇게 〈누구나, 아무도〉는 겉으로 상대를 담담하게 떠나보내지만 속내는 사랑했던 이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모습을 그려내는 작품이다. 이모(Emo)감성이 짙은 "ㄱㅗㅣㅅㅓㅇ"이나 작중 유일한 랩이 담긴 트랙 "목말라"는 앨범의 전체적인 무드와 이질적인 곡이지만 이별 이후 자신의 비틀린 일상과 내면을 그려내는 장치라 생각해보면 독특한 감흥이 느껴질 것이다.

이별은 누구나 겪지만 이에 따른 감정이 어떤지는 아무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다. 당사자조차도 말이다. 헤어짐의 순간은 담담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순간적으로 그 감정이 몰아치기에 말이다. 고타마 얼칸의 첫 정규 앨범〈누구나, 아무도〉는 이별 이후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들을 독특하고 서정적인 감성으로 그려내는 수작이다.



공ZA의 ZOOMTERVIEW #1

with DJSam

*풀버전은 힙합엘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tro: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힙합엘이 줌터뷰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공ZA라고 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 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스너이자, 컬렉터이자, 아빠이자, 학교 선생님이자, 랩도 하고 프로 듀싱도 하는 힙합엘이 DJSam입니다.

첫번째 질문 : 가장 최근에 들은 노래

[THE FIFTY] - FIFTY FIFTY

오늘의 첫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가장 최근에 들은 노래를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프티피프티라는 한국 걸그룹 노래를 돌려 들었어요. 〈Cupid〉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주변 반응이〈Cupid〉보다 이전에 나온 Ep가 음악적으로 더 좋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들어보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K Pop 혹은 아이돌스러운 노래가 아닌 건 맞아요. K Pop이라기보다는 Pop에 가까운 댄스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귀에 듣기에 좋은 음악들이 많구나라고 느꼈어요.

평소에 K Pop 장르의 음악도 많이 들으시나요?

유명하다고 하면 한 번씩은 체크하는데, 저는 곡에서 중간중간에 변주가 너무 많거나 브레이크, 곡의 스피드 등이 자주 바뀐다거나, 곡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를 크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힙합에서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이 앨범은 곡이 한 번 시작되면 일정한 리듬으로 쭉 가는 팝의 정서를 담고 있어 잘 들었습니다.

두번째 질문 :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노래

[동서고금] - 올드스쿨티쳐

[Mellon Collie And The Infinite Sadness] - Smashing Pumpkins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노래는 어떤 곡을 뽑아주셨을까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제가 최근에 어떤 곡을 가장 많이 들었냐고 하면 제 앨범을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은 지겨워서 못 듣겠다 싶을 정도로 발매 시점 쯤에는 제 노래를 많이 듣는데, 사람들이 '어떤 어떤 곡이 좋다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도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또들어보려고 해요. 제 자식이니까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마음으로 앨범이 나오면 초반에 한 두달은 하루에 한 두 번씩은 정주행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곡은 어떤 트랙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붐뱁 커넥션〉이라는 딥플로우와 운바머가 피처링한 곡이 인지도 면에서도 가장 높은 래퍼가 있고, 제 앨범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B.B.C.〉시리즈를 알고 계실 거예요. 제 앨범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Smashing Pumpkins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그 밴드의 [Mellon Collie And The Infinite Sadness]라는 되게 긴 두 장 짜리 앨범이 있어요. 여기서 제일 기억에 남는, 제 감성을 담은 한 곡을 뽑으라고 한다면〈Bullet With Butterfly Wings〉라는 초반부 트랙을 고르겠습니다. 저는 기분이 우울할 때 즐거운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울한 노래를 들어서 상쇄시키면서 감정을 푸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앨범 전체가 항상 저의 우울한 기분을 상쇄시켜주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 : 나만 알고 있는 노래 <If You Got Beef> - Omniscence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나만 알고 있는 노래인데요. 어떤 곡을 골라주셨나요?

1996년에 발표된 Omniscence의 〈If You Got Beef〉라는 곡을 골라보았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 곡이 수록된 CD를 샀어요. 그 때 당시에 힙합 쇼핑몰에서 '전설의 어마어 마한 무슨 CD가 재발매된다, 옛날에 싱글 바이닐로만 나왔던 앨범이 CD로 다시 나오는데 300 장 한정이라고 한다' 일단 좋은 거라니까 믿고 CD를 구매했죠. 그리고 뜯어서 들어보면 한 곡한 곡이 그냥 미친거죠. '와 Shit..'하면서 들었고, 그 당시에 2분 10초짜리 노래거든요. 참고로 Omniscence는 그룹이 아니라 흑인 솔로 래퍼입니다. 붐뱁인데 무조건 어둡기만 한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 훵키함이 가미되어 있고, 자꾸 제 앨범을 언급하게 되는데 이 노래를 다시 들으면서 '아, 내가 이 곡을 좋아하는 게 앨범에도 반영이 됐구나'라고 느꼈어요. 그 때는 배대지 같은 배송대행 업체도 없어서 직구가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이제 판매하는 측 이메일 주소에다가 '여기한국인데 우편으로 보내줄 수 있냐'는 문의를 보내면 '한국으로는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어찌저찌 이 CD도 그런 식으로 구매하게 된 앨범이거든요.

네번째 질문 :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

[Illmatic] - Nas

DJSam님은 올드스쿨티쳐로서 라이브 공연을 진행하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불암고 축제에서 딥플로우와 함께 무대를 섰던 거나, 제자하고 함께 공연을 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네요. 딥플로우와 함께 한〈작두〉무대에서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선 마이크두 개가 똑같은 레벨의 볼륨으로 준비가 되어있었어요. 노래를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딥플로우가 '저 마이크 게인 좀 바짝 올려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저는 제 파트가 오기 전에 게인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딥플로우는 게인이 올라간 상태다 보니까 딥플로우의 목소리는 쫙쫙 잘 묻어나오는데 제 목소리는 되게 세게 불렀는데도 소리가 상대적으로 묻히더라구요. 그 래서 이 날 랩은 정말 자신있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영상 속에는 잘 안 담긴 것 같아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 DJSam님이 청자 입장으로서 이 사람의 무대는 꼭 한 번 라이브로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아티 스트는 누구일까요?

저에게 '네 인생 마지막으로 이 사람 무대를 라이브로 보게 해줄게'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Nas의 [Illmatic]에 〈The World Is Yours〉를 뽑겠습니다. 왜냐면 제목에서부터 뭔가를 저에게 심어주잖아요? [Illmatic]으로 공연을 하는 투어를 Nas가 온다면 큰 스타디움이나 주경기장에서 하는 것 말고,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이 무대를 하는 500명 이하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곳에서, 앞에서 Nas가 땀 흘리면서 물 마시면서 공연하는 공간에 한 번만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섯번째 질문: 여행과 관련된 노래

<Move Somethin'> - Talib Kweli, Hi-Tek

<Fiesta (Remix)> - R. Kelly

<u>다음 질문으로 넘어</u>가서 여행과 관련된 노래인데요.

주제를 여행으로 잡으면 힙합에서 떠오르는 노래가 딱히 없었고, 제가 미국에 2001년 쯤에 유학 겸 어학연수로 1년 정도 있었어요. 미군 방송이 아니고서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한 장르만 나오는 방송이 거의 없다시피한데 거기는 시카고 힙합 전문 DJ 채널이따로 있어서 틀어놓으면 하루종일 힙합이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를 틀고 차를 몰면서 일리노이주에서 미시건 주로 갔다가 하다보면은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아침에도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말 그대로 미친듯이 나오던 노래가 있었어요. Talib Kweli와 Hi-Tek의〈Move Somethin〉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지금 생각해도 언더그라운드에 가까운 트랙인데, 그 때 당시에 라디오에서 미친듯이 나왔던 걸 보면 아주 언더그라운드도 아니고 어느 정도 메인스트림의 색깔도 있었던 것 같네요. 시카고에서 이 쪽 저 쪽 주를 떠돌아다니면서 라디오에서 매일 같이 들었던 노래라 여행하면은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올랐네요. 이 곡이랑 제일 같이 많이 나왔던 트랙이 R. Kelly가 부른〈Fiesta (Remix)〉였어요.

여섯번째 노래 : 취미와 관련된 노래

<Music> - Madonna

DJSam님의 취미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사거나, 만드는 행위가 제 취미이구요. 관련해서는 Madonna의 〈Music〉이라는 노래를 골라보았습니다. 차에서는 CD로 듣고, 집에서는 LP로 듣고, 학교에서는 음원으로도 듣기도 하지만, 어쨌던 간에 제가 어떤 음악을 청취하고자 했을 때 그 음반을 사려고 하는 편이예요. 그래서 사는 행위와 듣는 행위가 연결되어있죠. 그 두 가지가 저에겐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일곱번째 질문 : 과거/현재/미래를 대표하는 노래

과거: <Fight The Power> - Public Enemy

현재: <Michael & Quincy> - Nas

미래: <Bound 2> - Kanve West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곡인데요. 세 가지 테마 전부 선정해주셨을까요?

네, 전부 골랐습니다. 과거부터 이야기하자면 Public Enemy의 〈Fight The Power〉라는 곡이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음반 가게 사장님께서 '너 그렇게 힙합을 겉만 핥지 말고 진짜배기를 한 번 들어보아라, 마침 중고로 CD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걸 들으면 무조건 사가게 될거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노래를 트시는 거예요. 듣자마자 완전 취향 저격이었고, Public Enemy 앨범을 통해서 올드 스쿨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거죠. Public Enemy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그들이 뱉는 랩이 정말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요소였던 거죠. N.W.A나 Public Enemy 같이 그 때 활동했던 힙합 그룹들은 기믹이 아닌 정말 싸워야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의 것들만 Real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흑인의 과거를 대변해주는 메세지가 많아서 이 곡을 과거를 대표하는 곡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현재를 대표하는 노래로는 어떤 곡을 골라주셨나요?

현재는 Nas의 [King's Disease 3]에 수록되어 있는 〈Michael & Quincy〉라는 트랙을 골 랐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앨범에 퀸시 존스가 프로듀서로 참여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던 것처럼, 자기도 Hit-Boy와 결합을 해서 마이클과 퀸시 같은 조합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더라구요. Nas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과거이지스만 현재에도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고, 또두 사람의 조합이 80년대의 두 레전드였던 마이클과 퀸시를 레퍼런스함으로써 상기시켜 주는 거죠. 현재라는 말을 할 때 요즘 인기 있는 노래라기보다는 과거부터 힙합이 이어져오면서 지금 현재 힙합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먹히는 곡을 찾다가 이 트랙을 골랐습니다.

미래를 대표하는 곡으로는 어떤 트랙을 뽑아주셨을까요?

칸예의 [Yeezus] 앨범의 아웃트로 트랙인〈Bound 2〉를 골랐어요.[Yeezus] 앨범을 듣는 순간부터 '이게 힙합의 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사운드적으로는 인트로 트랙인〈On Sight〉을 미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앨범에서 미래를 대표하는 노래를 한 곡 고르려고 앨범을 다시 한 번 쭉 듣다 보니까 오히려〈Bound 2〉는 고전적인 스타일의 샘플링에다가 랩을 하는 칸예를 볼 수 있더라구요.

힙합이 새로운 실험을 계속 하지만 결국은 오리지널, 뿌리로 돌아가는 거죠.

자동차 튜닝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샌가는 순정으로 돌아가듯이, 칸예도 이 실험 저 실험하다가 그 실험의 마무리를 〈Bound 2〉 같이 한다는 건 힙합에도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하나의 뿌리가 있는 게 아닌가...

마지막 질문 : 인생 곡 혹은 인생 앨범

무수한 인생 앨범들 사이에서 한 작품만 고르는 게 쉽지 않아 포기하셨음.

DJSam님의 인생 곡 혹은 인생 앨범을 소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미친듯이 인터넷도 뒤지고 제 CD/LP장도 뒤지고 다 해봤는데 곡이나 앨범으로 하나를 고르는 순간 다른 앨범들한테 제가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CD를 15장까지 꺼내봤어요. 더 이상은 보지 말고 이 안에서만 고르자, 하면서 하나둘씩 제끼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의 답변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앨범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중에 알던 안 알던 하나로 고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네요. 15개 추리면서도 탑 15에 들지 못한 다른 앨범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웃음)

Outro: 인터뷰 참여 소감

인터뷰 직접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 거든 요즘 거든, 장르를 넘나들어도 기본적인 소양이 있으신 걸 제가 느끼니까 말하기가 즐겁고 편했어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은 흥미진진하고 안 좋았던 생각들은 싹 잊혀져서 인터뷰를 하는 1시간 동안은 힐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DJSam's Playlist

가장 최근에 들은 노래 THE FIFTY – FIFTY FIFTY

최근 가장 많이 들은 노래 Mellon Collie And The Infinite Sadness - Smashing Pumpkins

나만 알고 있는 노래 If You Got Beef - Omniscence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 Illinatic – Nas

여행과 관련된 노래 Move Somethin' - Talib Kweli, Hi-Tek

취미와 관련된 노래 Music – Madonna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노래

과거: Fight The Power - Public Enemy

현재: Michael & Quincy - Nas

미래: Bound 2 – Kanye West

DJ Sam + MC고동 = 올드스쿨티쳐 동부, 서부, 고전, 황금기 Hip-Hop을 총망라한 현직 교사 힙합 뮤지션 올드스쿨티쳐의 새 앨범 [동서고금]!

힙합엘이 OG이자 현직 교사로서 세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 올드스쿨티쳐님께 앨범 관련 여러 질문을 드려보았다.

정규 3집 <동서고금>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준비과정을 통해서 만드셨을까요?

2집 〈고인물〉을 야심차게 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기가 많이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주변에서 한 번 더 해보라고 권유하고, 1~2집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여러 래퍼들의 흔적을 남겨보고 싶어요. 그리고 딥플로우도 앨범을 발매하면 꼭 피처링으로 참여하겠다는 든든한 약속을 해주어서 뭔가를 남기려면 앨범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동 서고금〉을 준비하게 되었죠.

<훈장질>, <고인물> 다음으로 나온 정규 3집을 '동서고금'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곡을 만들다보니까 웨스트코스트 사운드가 한 번 해보고 싶어 그런 스타일로 하나 만들고, 또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사운드는 이스트코스트 쪽이니까 붐뱁 넘버도 만들고. 그리고 이름이 올드스쿨티쳐다 보니까 완전 올드한 트랙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나둘씩 만들면서 '동서고금'이라는 타이틀이 계속 머리에 맴돌고 있었어요. 원래 사자성어에서 '금'은 이제 금(今) 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 스타일의 곡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쪽으로는 솔직히 크게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 랩 네임하고도 어울리지 않구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금'자에 쇠금(金) 자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순간, 황금기(Golden Era) 앨범 이름을 〈동서고금〉으로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작업에 들어간 거죠.

앨범 타이틀처럼 앨범 안에 이스트코스트와 웨스트코스트 사운드를 적절히 섞으셨는데, 어떤 사운드가 본인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으신가요?

서부 쪽 명반을 듣고 있으면 '난 생각보다 웨스트코스트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다가 동부 명반을 듣는 순간에는 '그치.. 역시 힙합은 이거지'하면서 두 지역의 감성을 모두 즐기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한 쪽의 사운드만 좋아했더라면 굳이 두 가지 스타일을 앨범에서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동이랑 서 둘 중 하나만 시도 했을텐데 두 지역의 사운드가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보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 트랙을 제외하고 모든 곡에 피처링이 있는데, 피처링 섭외 관련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제가 1집을 만들기 시작했을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운드클라우드 계정도 없는 듣보잡, 갑 툭튀 래퍼였거든요. 맨땅에서 헤딩을 하던 사람의 음반을 듣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잘 들었다고 피드백을 남겨주시는 래퍼 분들이 계셨어요. 맨땅에서 헤딩을 하던 사람의 음반을 듣고 여러 경 로를 통해 잘 들었다고 피드백을 남겨주시는 래퍼 분들이 계셨어요. 반대로 저도 먼저 다른 래퍼 분들에게 이런이런 음반을 만들었는데 한 번 들어주세요,라고 말씀 드렸을 때 잘 들었어요, 라는 반응과 함께 팔로우를 역으로 걸어주시는 경우도 있었구요. 그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맞팔 상태가 된 래퍼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기 시작했고, 〈동서고금〉 피처링을 섭외할 때는 요청을 드렸을 때 충분히 승낙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죠. 팔로우 관계도 아닌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40살에 힙합을 시작해서~~'와 같이 구구절절 메세지를 보내봐야 너무 길어져서 읽지도 않을 것 같고, 최소한 맞팔로우라는 이야기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안다는 이야기니까 그걸 중심으로 섭외를 시도했죠.

섭외하신 많은 피처링 아티스트들 중에서는 어떤 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앨범에 참여하신 피처링 아티스트가 열일곱 분 정도 계시는데, 1~2집 작업을 할 때에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피처링을 받았었어요. 그렇게 피처링을 받아 보면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사람의 작업물에 비해서 피처링 벌스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컨디션 난조나 비트와의 궁합는 등 여러 이유를 통해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피처링으로 참여했으니 분명히 그런 부분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아카펠라가 들어올 때마다 '와! 이거 완전히 됐어!', '평소에들던 거보다 더 잘하시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분들이 보실까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쉬운 벌스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알던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였는데 내 곡에서 완전히 찢어버렸네?'라고 느낀 분도 있구요. 너무 다 마음에 들어서 이제는 나만 잘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들 정도로 유명도에 상관없이, 심지어 제 제자들도 너무 잘해주었구요. 프로 래퍼들도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도 너무 꼼꼼하게 벌스를 짜셔서 보내주셨고.. 이번 앨범을통해 귀인들을 참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앨범에서 타이틀 곡이 총 다섯 곡인데, 어떤 기준에서 타이틀 곡으로 선정이 됐을까요?

저도 원래 한 앨범에는 타이틀 곡이 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낙타 앨범을 발매할 때 '다른 앨범은 타이틀 곡이 여러 개던데 저도 그렇게 해도 되나요?'라고 업체에 여쭤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전곡을 타이틀로 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최대 다섯 개를 넘는 거같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보통 사람들이 내 앨범을 딱 봤을 때 전곡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타이틀에 눈길이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곡을 타이틀로 선정해야 사람들이 다음 곡도 들어볼까?' 했을 때 사운드적으로도 쫀득쫀득하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래퍼가 참여한 곡을 고르다보니 "붐뱁 커넥션"을 먼저 정하게 되었죠. 그 다음 "한잔"은 팝적인 어프로치에 보컬이들어가다보니 사람들이 가요처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식으로 고르다 보니 다섯 개를 정하게 된 것 같아요.

앨범의 트랙리스트는 어떤 기준으로 배치가 된 걸까요? 사운드적 흐름이나 스토리의 흐름을 고려하신 걸까요?

트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타이틀로 고려하였던 트랙을 전방에 배치할 것인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대중적인 곡을 먼저 뺄 것인지, 아니면 메세지적으로 어떤 서사를 만들어서 그에 따른 배치를 할 것인지 등등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서 이렇게도 짜보고 저렇게도 짜봤어요. 같이 준비하던 커버 디자이너 친구가 음악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짠 트랙리스트에 대해 피드백도 해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최종적으로는 제 랩네임이 올드스쿨티처이다 보니까 힙합에 대해서 티칭을 하는 느낌으로, 힙합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사운드적으로도 신나는 감성을 통해 사람들이 들으면서 즐길 수 있게 "특강"을 1번 트랙으로 골랐어요. 고민이었던 건 2번 트랙 "무슨 수를 써서라도"였어요. 이 곡은 웨스트 감성은 있지만 정통 웨스트처럼 엄청 신나는 것도 아니고, 가사의 주제도 가벼운 편은 아니라 가볍게듣기에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었어요. 긴가민가했지만 그렇다고 "특강"을 도입부로 한 다음에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빨리 딥플로우 카드를 꺼내야지! 라고 하면 앨범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힙합을 즐겨 들으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밝은 주제는 아니지만 사운드적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 노래까지 제대로 들어준 사람이라면 메인 무기를 꺼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초반부 배치를 가져갔어요.

앨범 전곡을 셀프 프로듀싱을 통해 작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찍었지만 이 곡은 정말 끝내준다, 라고 생각하신 비트가 있으실까요?

저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해도 이 비트는 정말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한 건 "정공법"이예요. "붐뱁 커넥션"도 그렇고 물론 전체적으로 다 잘 나왔지만, 다른 곡들은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사운드를 잘 오마주했거나 레퍼런스했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공법"은 옛날 붐뱁인 듯 하면서도, 되게 실험적인 것 같으면서도 웨스트적인 평키함도 들어가고... 그리고 저도 제가 만든 비트에 벌스를 하나씩 다 얹었잖아요? 똑같은 BPM인데도 어떤 비트는 랩이 되게 재미없고 단순하게 나오는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쭉쭉 써지더라구요. 가사며, 박자 그루브 쪼개는 거며 어떻게 해야 멋있을까?와 같은 고민은 하나도 안 하고 앉은 자리에서 바로 술술 쓰고 작업했는데 제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어요. 올드스쿨티쳐의 오리지널리티가 들어있다고 해야할까요.. 그래서 앨범 선공개 EP로 이 곡을 수록한 게 그런 자신감에서 비롯된 듯 해요.

올드스쿨티쳐로서의 향후 계획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를 가끔씩 찍을 예정이고, 래퍼로서의 올드스쿨티쳐는 지금은 사실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스승의 날에 발매된 저의 정규 3집〈동서고금〉을 이 글을 보신다면 한 번쯤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를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 CD 10장을 선물하려 합니다. 힙합엘이 국내 게시판에 제 앨범에 대한 리뷰나 저의 활동에 대해 서 느끼신 점 등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열 분을 선정하여 제 동서고금 음반(스탠다드 에디션) 을 보내드릴게요! 창간호 특별 부록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4일 마감) 글 제목이나 본문에 '동서고금'을 넣어주시면 제가 검색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SSUE #2 29

ISSUE #2 PREVIEW

AP ALCHEMY VS KC, 두 개의 뜨거운 감자 by WAVE

'AP Alchemy', 전무후무한 '초대형 레이블'

쇼미더머니 11의 미지근한 마무리 후 활력을 잃은 힙합씬에, 스윙스가 돌아왔다. 그것도 50여 명 규모의 초대형 레이블과 컴필레이션 앨범과 함께.

스윙스를 중심으로 설립된 5개 레이블의 지주 회사 'AP Alchemy'. 이들은 컴필레이션 앨범 [AP Alchemy : Side A]와 [AP Alchemy : Side P]부터 추가로 발매된 곡들까지, 마치 용광로 속 쇳 덩이처럼 뜨거운 빛을 뿜으며 계속해서 씬에 새로운 노래를 공급하고 있다. 50여 명 규모의 단체를 진두지휘하는 스윙스의 영향력 아래, 수많은 프로듀서진, 경쟁하듯 랩 하는 래퍼들의 에너지는 문자 그대로 '연금술'을 연상케 한다. 스윙스의 장담대로 올해가 이들의 것이 될지, 귀추가주목된다.

KC, 식케이의 다음 도약

오랜 기간 몸담았던 'H1GHR MUSIC'을 떠난 뒤 약 1년 만에, 식케이가 새로운 레이블 'KC'을 설립했다. 그리고 함께 같은 소속이었던 HAON을 첫 번째 아티스트로 영입하고, 함께 [ALBUM ON THE WAY!]라는 앨범을 발표했다.

[ALBUM ON THE WAY!]는 Playboi Carti로 대표되는, 레이지라는 세부 장르를 적극적으로 차용한 앨범이다. Playboi Carti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준수한 사운드에 대한 이해도와 'H1GHR MUSIC'에서 쌓아온 적절한 팝적 감각을 살려 세련된 앨범을 내놓았다. 과연 이들이 새로운 게임 체인져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Playboi Carti의 아류로 남게 될 것인지, 식케이와 'KC'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다윗과 골리앗

두 레이블 각자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지만, 더욱 이슈가 되는 건 이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비프(Beef)다. 이 비프는 릴러말즈와 NSW Yoon, 스트릿베이비의 합작 앨범 [Daydate]의 〈Money Dance (Feat.HAON, 식케이)〉에서 식케이가 일명 '묵음 디스'로 스윙스를 디스하며 가시화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디스가 오갔으나. 지금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덕분에 묘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사람들의 관심이 이들의 행방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과연 누군가의 승리로 끝이 날지, 승자 없는 싸움이 될지, 앞으로 증명하는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COVER DEISGN" BLACKMATTER

"MAGAZINE DESIGN"
BLACKMATTER

"ABOUT H.O.M" BLACKMATTER 자이즈

"MEMBERS"
BLACKMATTER
SNXO
자이즈
DEVI KEN
LODING
악귀불패워럽
TOY_WIZ
WRITERSGLOCK
孔JESUS
대게
45
오호홍햄빠끄세트
WAVE
NICOLAS

"ZOOMTERVIEW" 孔JESUS DJSAM

"NEW ALBUMS"
DEVI KEN
WRITERSGLOCK
LODING
대게
악귀불패워럽
45
쟈이즈

"ISSUE #2" WAVE

ISSUE #1

Special Shout-Out to Every Black Music Artists in South Korea



HAUS OF MATTERS KHL KILL THEM ALL

